**신자는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찰스 크래프트**

****

† 신자는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쫓는 일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히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은 축사의 은사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만이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고 있는 한

그들이 귀신 쫓는 일을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축사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영적 은사에도

축사의 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전 12-14장; 롬 12:1-8; 엡 4:1-16; 벧전 4:7-11 참조).

혹자들은 이것이 신유, 능력 행함, 긍휼, 혹은 영 분별의 은사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귀신 쫓는 은사를 따로 말한 부분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 이유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사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고,

제자들(처음에는 12제자, 그리고 72인의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

(눅 9-10장).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요 20:22),

그 성령은 예수님을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게 해주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다(마 28:20).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신 말의 의미는,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은사가 있든지 없든 지에 상관치 않고 귀신 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축사 사역은 순종에 속하는 것이지 은사가 아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지은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중에서...)